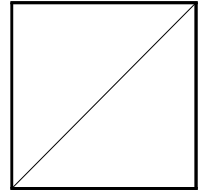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8호	보 고 사 항
보 고 연 월 일	2023. 12. 27. (제 23 차)	

「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  
공급계획(2024~2026년)」 보고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김 주 현
제출 연월일	2023. 12. 27.

## 1. 보고주문

「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(2024~2026년)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.

## 2. 보고이유

「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」(‘21.5월)에 대한 ‘23년까지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, ‘24년 이후의 계획을 수립·보고

## 3. 주요골자

가.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·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목표 수립

- ‘24~’26년간 중·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: 평잔 30% 이상
-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한도 초과 대출잔액을 비중산출에 포함

나.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관리와 중·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추가 고도화 지속 추진

다. 중·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 및 유동성 등 기초체력을 충실히 다지도록 유도

## 4. 참고사항

가. 2023년도 제2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3.12.19.) 보고

나. 「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(2024~2026년)」 : <별지>

< 별지 >

---

**인터넷전문은행**  
**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**  
**[2024~2026년]**

---

**2023. 12.**

**금 융 위 원 회**  
**금 융 감 독 원**

I . 검토배경 .....	1
II . 「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」 이행현황 ...	1
1. 이행현황 .....	1
2. 평가 .....	3
III . '24~'26년 중·저신용자 대출공급 계획 .....	4
1. 은행별 대출공급, CSS고도화, 건전성관리 계획 ..	5
2. 관리·감독 방안 .....	8
IV . 향후 계획 .....	8
(붙 임)	
1. 카카오뱅크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 등 계획 .....	9
2. 토스뱅크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 등 계획 .....	12
3. 케이뱅크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 등 계획 .....	15

## I. 검토배경

- 『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』('21.5월)에 대한 '23년까지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, '24년 이후의 계획을 수립

## II. 「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」 이행 현황 및 평가

### 1 이행현황

#### 1) 대출 공급

##### < '21.5.26. 금융위 보고내용 >

- '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'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

- ① 카카오뱅크·케이뱅크 및 토스뱅크의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\*을 단계적으로 확대 ⇨ **'23년말 30% 상회 목표**

\* 중·저신용자(신용평점 하위 50%) 대상 신용대출 잔액/전체 신용대출 잔액

- ②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정책,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 확대

- 중·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, 대출 규모 면에서도 크게 증가

- (비중) '21.5월 각 은행이 제출한 자체계획과는 일부 간극이 있으나, 금융당국과 함께 설정한 '23년말 30% 상회 목표에는 근접

- '23년 11월말 기준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0.1%, 토스뱅크 32.3%, 케이뱅크 28.1%

##### < 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(단위 : %) >

구 분	'20년말	'21년말	'22년말	'23년 11월말	은행자체계획 ( '23년말)
카카오뱅크	10.2	17.0	25.4	30.1	30
토스뱅크	-	23.9	40.4	32.3	44
케이뱅크	21.4	16.6	25.1	28.1	32
계	12.1	17.1	29.1	30.3	

\* 사잇돌대출(서울보증보험 보증부 대출) 등 보증부 대출 제외 (이하 동일)

- 금리상승 과정에서 중·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은 상승 추세

<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(중저신용자) 연체율 추이 (단위 : %) >

구 분	'20년말	'21년말	'22년말	'23년 11월말
카 카 오 뱅 크	0.82	0.48	1.23	<b>1.76</b>
토 스 뱅 크	-	0.00	1.46	<b>2.56</b>
케 이 뱅 크	2.95	1.77	2.81	<b>3.92</b>
계	1.44	0.82	1.71	<b>2.51</b>

- (잔액)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'23년 11월말 기준 3사 합계 9.57조원까지 증가('20년말 대비 **4.73배 증가**)

< 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 잔액 (단위 : 억원) >

구 분	'20년말	'21년말	'22년말	'23년 11월말
카 카 오 뱅 크	14,380	24,643	32,414	<b>43,149</b>
토 스 뱅 크	-	1,260	28,915	<b>30,634</b>
케 이 뱅 크	5,852	9,725	20,771	<b>21,929</b>
계	20,232	35,628	82,100	<b>95,712</b>

## 2) CSS\* 고도화

\* 신용평가시스템 (Credit Scoring System)

< '21.5.26. 금융위 보고내용 >

- 인터넷전문은행이 중·저신용자에 대한 상환능력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CSS 고도화 병행 추진
  - 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

-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와 비금융활동정보 및 기타 대안정보 등을 결합한 데이터를 통해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개발·운영 중

※ 인터넷전문은행별 CSS 고도화 추진 내역

- (카카오뱅크) 통신·부동산정보, 카드사 가맹점 정보 등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하여 대출신청평점 모형을 개발하였고, 7개 기관의 약3,700만건의 가명결합데이터를 활용하여 '카카오뱅크 스코어'를 개발적용하였으며,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모형도 개발

- (토스뱅크) 토스앱기반 비금융활동정보, 마이데이터,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토스뱅크 신용평가모형(TSS, Toss Scoring System) 개발·운용
- (케이뱅크) 소득, 신용이력 등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(KT) 및 유통 등 대안 정보를 케이뱅크 신용평가모형(KSS, Kbank Scoring System)에 반영

- 여신심사가 어려웠던 중·저신용자, 금융 이력 부족자(Thin Filer) 등에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,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혜택 부여 중

#### ※ CSS 고도화를 통한 중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내역

- (카카오뱅크)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고객 변별력 향상으로 연 4,600억원 규모의 중·저신용대출 “추가” 승인 (기존대비 약 15% 증대효과)
- (토스뱅크) CB\*사 기준 중저신용자였던 약 10만명의 고객을 고신용자로 재평가하여 2.1조원의 신용을 공급하였고, 등급이 상향된 중저신용자는 260bp의 금리인하 경험  
\* Credit Bureau, 개인신용조회회사
- (케이뱅크) 대안정보 활용으로 변별력을 강화, 고객의 84%에 대한 평가등급이 상향되었으며, 평균 64bp 금리 인하 효과

## 2 평가

- 중·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가 ‘20년말 대비 4.7배 증가하고 ‘23년말 목표인 30%에 근접하는 등 소기의 성과 달성
- 기존 금융정보 외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하여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향상시켜 신용공급 증대 및 금리인하 등 효과 시현
- 다만,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 등을 감안시 안정적인 중·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 강화와 함께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추가 고도화 등 필요

### Ⅲ. '24~'26년 중·저신용자 대출공급 계획

#### < 기 본 방 향 >

- ① **(대출 공급)**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·저신용자\* 신용대출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목표 수립

\* KCB 기준(이하 동일)

- '24~'26년간 중·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: **평잔 30% 이상**

- <sup>i)</sup>전체 차주 중 중·저신용자 비중이 50%이고, <sup>ii)</sup>고신용자에 비해 중·저신용자의 대출액 규모가 작으며, <sup>iii)</sup>중·저신용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, 목표비중을 30% 수준보다 높이는 데 한계
- 그간 중·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높이는 과정에서 '말잔' 기준으로 운영이 불가피하였으나, 30% 수준에 이른 만큼 안정적 관리를 위해 '말잔' 기준을 '평잔'으로 전환

- **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\***과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한도 초과 대출잔액을 비중산출에 포함

\* 소호(SOHO) 신용평점 4등급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, 소호등급이 없을 경우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중·저신용자 분류

- **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**

- (현행) '개인'의 신용대출 만을 대상으로 비중 산정
- (개선) 경기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업·자영업을 운영하는 중·저신용자 대상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포함

- **서민금융대출**

- (현행)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 전액이 비중에서 제외
- (개선) 보증한도(예: 햇살론뱅크 90%) 초과 대출잔액(예: 햇살론뱅크 10%) 포함

- **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** 가계부채 관리 정책,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 확대

- ② **(CSS고도화)**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관리와 중·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추가 고도화 지속 추진

- ③ **(건전성관리)** 중·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 및 유동성 등 기초체력을 충실히 다지도록 유도



## 1) 카카오뱅크

□ **(대출공급)** 향후 3년간 5.23조원까지 중·저신용자 대출 잔액 규모를 확대할 계획

- CSS 고도화로 금융이력부족자(ThinFiler)에 대한 변별력을 확대하고 안정적 대출 기반을 마련, 지속 가능한 중·저신용대출 공급체계 확충

<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계획 (단위: 억원) >

구 분	'23년 11월말	'24년	'25년	'26년
중·저신용대출 잔액	43,149	48,193	50,347	52,333

\* 개인신용대출 점유율, 정부 가계부채관리정책, 중저신용대출 건당 취급규모 등 고려·산정

\*\* '23년11월말은 말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미포함), '24~'26년은 평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포함)

□ **(CSS고도화)** 신용평가모형 재개발,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대안정보 활용 확대, 대환대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 추진

- 중·저신용자 대출신청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신청평점모형 재개발
- 차량관련정보, 유통정보, 입출금정보 등 대안정보의 유의미성 검토 등을 통한 카카오뱅크스코어 고도화 진행
- 대환대출을 신청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환대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

□ **(건전성관리)**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, 조달원천 다변화,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등을 통해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제고

- (선제적인 충당금 적립) 중·저신용대출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약 2.5~3배의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
- (조달원천 다변화) 중·장기적으로 은행채 발행 등 조달원천의 다변화 시도 예정 (현재 신용등급 AA+\_3대 신평사 기준)
- (부실채권 관리) 취약·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, 채무감면 정책 개편 및 캠페인을 통한 매입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검토

## 2) 토스뱅크

□ **(대출공급)** 향후 3년간 4.78조원까지 중·저신용자 대출 잔액 규모를 확대할 계획

- CSS고도화와 상품성 개선 및 판매채널 확대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중·저신용자를 포용할 계획
- 특정 차주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신용 대비 과도한 한도를 부여하는 왜곡된 공급은 지양

### <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계획 (단위: 억원) >

구 분	'23년 11월말	'24년	'25년	'26년
중·저신용대출 잔액	30,634	43,867	45,852	47,837

\* '23.12월 기준 경영 환경 및 자산성장 예상치로 추정

\*\* '23년 11월말은 말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미포함), '24~'26년은 평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포함)

□ **(CSS고도화)** 신규 대안정보를 발굴하고 인공지능(AI)기반의 신용평가 모델링을 적용하여 TSS\*의 완성도와 성능을 지속 제고

\* 토스뱅크 신용평가모형 (Toss Scoring System)

- 다양한 비금융사와 정보제휴를 통해 신규 대안정보를 발굴하고 신용평가에 비중있게 활용
- 최신 AI기반 모델링 기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신용평가 모형의 성능을 제고하고 건전한 중·저신용자를 보다 폭넓게 포용
- 머신러닝/딥러닝 알고리즘을 신용평가에 적합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 및 인력 강화, R&D 등 적극적인 투자 지속

□ **(건전성관리)** 중·저신용자 대출 리스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연체율, 부실채권, 자본 및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

- 매·상각 등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를 통해 중·저신용자 신규대출을 지속 취급하기 위한 여력 확보
- 대출관리·증자 통해 BIS비율을 14% 수준에서 안정적 관리
- 고유동성 채권 확보, 차입한도(Credit Line) 확대 등을 통해 중·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도 유동성을 건전하게 관리

### 3) 케이뱅크

- **(대출공급)** 향후 3년간 2.77조원까지 중·저신용자 대출 잔액 규모를 확대할 계획

- 신용대출 잔액의 성장과 함께 중저신용자 비중을 30% 이상으로 유지하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

#### <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계획 (단위: 억원) >

구 분	'23년 11월말	'24년	'25년	'26년
중·저신용대출 잔액	21,929	25,007	26,303	27,703

\*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지속 확대, 전체 여신 건전성 제고 등 고려·산정

\*\* '23년11월말은 말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미포함), '24~'26년은 평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포함)

- **(CSS고도화)** 대안정보 특화 머신러닝 모형 개발 및 케이뱅크 앱 이용정보를 활용하는 등 CSS 고도화 추진

- 통신데이터 기반 특화모형을 개발하고, 모바일사용시간, 데이터 사용량,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사용정보 등 추가 대안정보 활용 확대

- 케이뱅크 앱 이용 및 상담 정보 기반 신규 대안항목(가입기간, 메뉴별 클릭, 체류·경과 시간 등)을 발굴, 고객행동평점(BS)에 적용 계획

- **(건전성관리)**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및 부실채권 회수활동 등을 강화하고, 유동성 긴급대책 계획 점검 및 유상증자도 지속 추진

- 과거경험 데이터 기반으로 우량 중·저신용자를 선별하고, 취약 차주 및 초기 연체전이율 정기 모니터링 등을 통한 관리

- 부실채권 증대에 따른 회수관리조직을 확대하고, 상담안내 및 회수활동을 위한 채권관리시스템 도입

- 유동성 위기 시 유동성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 및 대응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긴급대책 계획(Contingency Plan) 운영

- 유상증자 추진을 통해 고유동성 자산 및 신사업 투자자금으로 활용 예정

- ① 은행은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\*

\*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시스템

- ② 금융당국은 이행현황을 점검\*(분기별)하고, 필요시 개선 권고

**<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, 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계획 이행 여부 >**

- '26년말까지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(평잔) 30% 이상 달성여부를 분기 단위로 점검
- 대안정보 확대 실적 등을 포함한 CSS 고도화 실적과 건전성 관리 현황을 공개

-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·허가 등에 고려

-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·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 여부를 질적 판단요소\*로 감안

\* 사업계획의 신뢰성,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 시 반영

- ④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, CSS 구축 및 건전성 관리 계획을 면밀하게 심사

- ⑤ 인터넷전문은행 IPO 시 상장 관련 서류, 증권신고서에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명확하게 기재·공시(한국거래소)

\* 거래소는 공익 실현,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 요구 가능

## IV. 향후 계획

- '26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'27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

## 1 중·저신용대출 공급계획

□ **(현황)** 카카오뱅크는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'21.5월 중·저신용대출 목표 수립 이후 CSS고도화 및 유연한 신용평가 정책 적용을 통해 매년 신규취급액을 확대하고 있음

- 중·저신용대출 전용 자체 상품 출시 및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(중도상환 수수료 면제, 첫달 이자지원 등)을 바탕으로 '20년말 대비 대출 잔액이 3배 가량(2.87조원 순증) 증가하며 '23.11월말 현재 4.3조원 기록

<카카오뱅크 중·저신용대출 현황 (단위: 억원)>

구 분	'20말	'21말	'22말	'23.2Q	'23.11말
중·저신용대출 잔액	14,380	24,643	32,414	39,184	43,149

⇒ '22년말 중·저신용대출 목표 비율 충족에 이어 '23년말에도 중·저신용대출 목표(30.0%) 달성 예상

□ **(계획)**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비롯한 CSS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(Thin Filer)에 대한 변별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대출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중·저신용대출 공급체계를 확충할 계획

- (공급 목표) 향후 3년간 중·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점증적으로 확대해 '26년말 기준 5.23조원까지 확대할 계획
- (달성 방안) '24~'26년까지 3년간 매년 신규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30% 이상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중·저신용 대출로 공급

<카카오뱅크 중·저신용자 공급 계획 (단위: 억원)>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
중·저신용대출 잔액	48,193	50,347	52,333

\* 불가피한 대외환경 변화 및 자산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공급 계획은 변동 가능하며, 유동성 상황에 따라 평잔 규모는 변동할 수 있으나, 평잔 비중 30% 이상 유지 계획

## 2 CSS고도화 계획

- **(현황)** 내부거래데이터, 외부CB사의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정보, 부동산정보, 카드사 가맹점 매출액 정보 등의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하여 대출신청평점모형을 개발하였으며('21.6월)
  - 중·저신용자를 위한 별도의 전략모형을 머신러닝 방법으로 개발·적용하고 고객의 평가를 세분화하여 중·저신용대출 공급 확대 본격화
  - 7개\* 기관의 약 3,700만건의 가명결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대안신용평가모형인 '카카오뱅크 스코어' 개발·적용('22.12월)
    - \* 카카오뱅크, 카카오모빌리티, 카카오선물하기, 교보문고, 다날, 롯데멤버스, 금융결제원
  - ⇒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고객 변별력 향상으로 연 4,600억원 규모의 중·저신용대출 “추가” 승인 가능(기존 대비 약 15% 증대효과)
  - 6개\* 기관의 약 2,400만건의 가명결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('23.4월)
    - \* 카카오뱅크, NICE평가정보, KCB, 중소기업중앙회, 금융결제원, 한국신용데이터(캐시노트)
  - ⇒ 음식업·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특화전략모형을 별도 개발하여 우량고객 추가 선별에 활용
- **(계획)** ①중·저신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모형 재개발, ②마이데이터를 포함한 대안정보 활용 확대, ③대출 취급행태 변화를 고려한 대환대출 고객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

### <카카오뱅크 CSS 고도화 계획>

<b>①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및 고도화 (~24년)</b>
▶ '21년 이후 확대된 중·저신용자의 대출신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 변별력 개선을 위한 대출신청평점모형 재개발(고도화) 진행
<b>② 대안정보 활용 확대를 통한 고도화 추진 (~25년)</b>
▶ '카카오뱅크스코어'에 차량 관련 정보, 유통 정보, 입출금 내역 정보 등의 대안정보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토하여 카카오뱅크스코어 고도화 진행 (~24년)
▶ 마이데이터를 통해 신용정보 외의 다양한 자산정보를 활용하여 중·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자(Thin-filer)의 신용평가 정교화 추진 (~25년)
<b>③ 대환대출 신용평가 고도화 (~25년)</b>
▶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실적 확대에 따라, 대환대출을 신청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환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

### 3 건전성 관리 계획

- **(현황)** '19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흑자 전환 이후 지속가능경영 기반 마련으로 국내은행권 상위의 건전성 및 유동성 지표비율을 보유 중

<카카오뱅크 건전성 및 유동성 지표 현황 ('23.9월말 기준)>

연체율	부실채권(고정이하)	BIS비율	LCR*
0.49%	0.41%	30.7%	515.8%

\* Liquidity Coverage Ratio, 유동성커버리지 비율

- **(건전성 관리)** 국내 은행권 평균 BIS비율('23.9월 기준 14.8%) 대비 월등한 자본여력을 보유하고 있어 불측의 경기침체에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보유

- 지속적인 중·저신용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CSS 고도화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연체율 관리 중\*

\* ('22.3분기) 0.36% → ('22.4분기) 0.49% → ('23.1분기) 0.58% → ('23.2분기) 0.52% → ('23.3분기) 0.49%

- **(유동성 관리)** 유동성 지표비율은 감독기준\*을 상회하고 있으며,

\* 유동성 관련 감독기준 : 예대율 100%이하, LCR 95%이상

- 광범위한 고객 기반 (고객수 2,228만명) 및 혁신적인 수신 상품 출시를 통한 예수금 조달 안정성 강화\*에 주력하고 있음

\* 안정적예금\* 비중이 '23.9월말 기준 국내 주요은행 평균을 상회하는 37% 수준으로 안정적인 예수금 조달 구조 보유 중 (※ 급여이체, 자동이체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"이탈가능성이 낮은" 자금)

- **(계획)** ①선제적인 충당금 적립, ②조달원천 다변화, ③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등을 통해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제고할 계획

- ① **(선제적인 충당금 적립)**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·저신용대출은 고정이하 여신 대비 약 25~3배의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

- ② **(조달원천 다변화)** 중·장기적으로 은행채 발행 등 조달원천의 다변화 시도 예정 (현재 신용등급 AA+\_3대 신평사 기준)

- ③ **(부실채권 관리)** 취약·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, 채무 감면 정책 개편 및 캠프를 통한 매입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검토



## 1 중·저신용대출 공급계획

- (현황) 토스뱅크는 '21.10월 출범 이후 중·저신용자 포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, '23.11월 현재 3.06조원 규모 대출 공급 중
- 차별적인 대안정보 및 경쟁력있는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중·저신용자를 고신용자로 재평가
  - 중·저신용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자체 프로그램(매달 내는 돈 낮추기, 매달 이자만 갚기 등)을 통해 포용 이후에도 건전하게 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

<중·저신용자 대출 잔액 현황>

(단위 : 억원)

구분	'21년	'22년	'23년 11월말
대출 잔액	1,259	28,915	30,634

- (계획) 향후 3년간 4.78조원까지 중·저신용자 대출 잔액 규모를 확대할 계획
- 현재 수준의 경영환경 지속 시 매년 1~1.5조원 규모의 중·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신규로 공급 가능
  - CSS고도화와 상품성 개선 및 판매채널 확대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중·저신용자를 포용할 계획
  - 특정 차주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신용 대비 과도한 한도를 부여하는 왜곡된 공급은 지양

<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>

(단위 : 억원)

구분	'24년	'25년	'26년
대출 잔액	43,867	45,852	47,837

※ 불가피한 대외환경 변화 및 자산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



## 2 CSS고도화 계획

- **(현황)**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이력 부족자, 개인사업자 등 중·저신용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특화모형을 개발하여 운영 중
  - 토스뱅크 신용평가모형(TSS, Toss Scoring System)은 신용정보모형(CB정보 위주)과 대안정보모형(대안정보 위주)이 조화롭게 결합된 형태
  - 토스앱 기반 비금융활동정보 및 마이데이터, 노란우산공제(중기중앙회) 개인사업자 정보 등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대안정보를 선도적으로 활용
  - TSS를 통해 CB사 기준 중저신용자였던 23.3%(그룹2)를 고신용자로 재평가 → 약 10만명의 차주를 제1금융권으로 신규 포용
    - 재평가를 통해 2.1조원의 신용을 공급하였고, 등급이 상향된 중·저신용자는 260bp의 금리인하 효과 경험
    - 포용한 고신용자의 연체율(그룹2, 1.44%)이 중·저신용자 연체율(그룹3, 7.39%) 대비 매우 낮아 모형 성능 입증

<토스뱅크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분류 및 그룹별 연체율('23.9월말 잔액 기준)>

구분	내용	비중	연체율
그룹1	CB(KCB), 토스뱅크 모두 고신용자로 구분한 Group	64.2%	0.42%
그룹2	<b>CB(KCB)는 중저신용자로 구분했으나 토스뱅크는 고신용자로 구분한 Group</b>	<b>23.3%</b>	<b>1.44%</b>
그룹3	CB(KCB), 토스뱅크 모두 중저신용자로 구분한 Group	11.2%	7.39%

- **(계획)** 신규 대안정보를 발굴하고 AI기반의 신용평가 모델링을 적용하여 TSS의 완성도와 성능을 지속 제고
  - 다양한 비금융사와 정보제휴\*를 통해 신규 대안정보를 발굴하고 신용평가에 비중있게 활용(대안정보 가중치 40%→50% 수준으로 상향)
    - \*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및 기업활동정보(개인사업자), 명함 등 사회활동 정보, 도서(문화) 소비정보, 온라인스토어 개인사업자정보, 상권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 유효성 검증 중
  - 상권 및 업황, 고용·거래 등 경영활동, 매출 정보 등 개인사업자 특화 대안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평가 고도화
  - 최신 AI기반 모델링 기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신용평가모형의 성능을 제고하고 건전한 중·저신용자를 보다 폭넓게 포용
  - 머신러닝/딥러닝 알고리즘을 신용평가에 적합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 및 인력 강화, R&D 등 적극적인 투자 지속

### 3 건전성 관리 계획

□ **(현황)** 출범 3년차 신생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연체율과 자본비율, 유동성 등을 건전하게 관리하며 안정성 확보

-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%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, BIS비율은 12.7%(바젤 I 기준), LCR은 600% 이상으로 관리 중

<토스뱅크 건전성 및 유동성 지표 현황 ('23.9월말 기준)>

연체율	부실채권(고정이하)	BIS 비율	LCR
1.18%	1.27%	(바젤 I)12.7% (바젤Ⅲ)15.7%	613.37%

\* BIS비율은 자본확충('23.10월, 2,850억원 유상증자) 후인 '23.11월 수치

□ **(계획)**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연체율, 부실채권, 자본 및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

- 신속·정확하게 연체 발생 가능성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
  - 취약 차주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'24년 이후 연체율을 1% 이내로 관리할 계획

- 매·상각 등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를 통해 중·저신용자 신규대출을 지속 취급하기 위한 여력 확보

- '23년 하반기 1,500억원 규모\* 매·상각 진행 예정이며, 향후에도 적극 관리

\* 전체 매·상각 채권의 78%(약1,170억원)가 중·저신용자 채권

- 대출관리 및 증자 통해 BIS비율을 14%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

- 고유동성 채권 확보, 차입한도(Credit Line) 확대 등을 통해 중·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도 유동성을 건전하게 관리

- 필요 시 채권매각 또는 담보차입으로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동성 채권을 충분히 보유하고 Credit Line을 지속 확대

\* 현재 원회예수금 대비 채권비중 50.7%, 보유 채권 중 국채 및 통안채 비중 95% 이상

**1 중·저신용대출 공급계획**

- **(현황)**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\*에 따라 영업 개시 이후부터 100% 비대면 중저신용자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

\* 디지털 금융 혁신, 포용금융 확대

- 이에 따라 대출업무 개시('17년) 이후부터 '19년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조원의 신용대출을 공급
- '20년부터는 머신러닝을 통한 CSS고도화, 통신·쇼핑 등 대안정보 활용 확대, 신용대출한도 소진자 대상 추가 한도제공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소외된 중저신용자 고객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
- 또한 중저신용자 유입 확대를 위해 대출비교플랫폼 4개 입점, 은행권 최저 수준 금리 적용, 월 상환금액 줄이기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노력

⇒ 이를 통해 '21~'23년중 중저신용자에게 약 4조원의 신용대출 제공

<케이뱅크 중·저신용대출 현황 (단위: 억원)>

구분	'21 년말	'22 년말	'23 년 11 월말
중저신용자 잔액	9,725	20,771	21,929

- **(계획)** 지속적인 CSS고도화, 판매 채널 확대,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'26년까지 중저신용자 평잔 규모를 2.77조원까지 확대

- 또한 신용대출 잔액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중저신용자 평잔 비중을 30% 이상으로 유지하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

<케이뱅크 중·저신용자 공급 계획 (단위: 억원)>

구분	'24 년	'25 년	'26 년
중저신용자 평잔	25,007	26,303	27,703

※ BS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 및 건전성, 유동성 상황에 따라 중저신용자 평잔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, 중저신용자 평잔 비중은 30% 이상을 최대한 준수 예정

## 2 CSS고도화 계획

□ **(현황)** CSS 고도화, 대안정보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자(Thin Filer) 대상의 **변별력을 향상**시킴으로써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 상향, 금리인하 등 효과

○ **(CSS 고도화)** 중저신용 신규대출 확대를 위해 머신러닝(Machine Learning, ML) 기반 CSS를 3개의 세그먼트\*로 구분하여 개발

\* 신청정보(AS) 모형 : 고신용자 / 중저신용자 / Thin-filer  
행동정보(BS) 모형 : Prime / N-Prime / 개인사업자(SOHO)

○ **(대안정보 활용)**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·유통 등 대안정보\*를 반영하여 모형의 추가적인 변별력을 확보

\* (예) 롯데멤버스 최근 적립포인트, 최근 쇼핑/여행 등 이용패턴  
KT 단말기 이용료 납부내역, 통신 수발신 평균이용시간 등 행동정보 등

⇒ 이를 통해 고객 평가등급 상향, 금리인하 및 승인 대상 확대 등 효과

◆ **(고객 평가등급 상향)** CSS 고도화 및 대안정보의 활용 등으로 고객들의 평가등급이 평균 84% 상향(유지 15.8%, 하락 0.2%)

◆ **(금리인하)** 금리(신용 프리미엄)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적으로 64bp 하락

◆ **(대출 승인대상 확대)** 승인율은 11.5% 상승(구모형거절→신모형승인), 승인금액은 2,014억원 증가(실행금액 1,092억원, 실행률 5.9%↑)

□ **(계획)** 대안정보 특화 ML모형 개발 및 은행 앱 이용정보 활용 확대

○ 리스크 변별력 추가확보를 위해 기 활용 중인 정보 외 추가적인 통신데이터\* 기반 특화모형 개발·도입 계획

\* 모바일사용시간, 데이터사용량,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사용정보, 넷플릭스 이용정보, 채널 별 시청정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들로 확대 예정

○ 또한 은행 앱 이용 및 상담 정보기반 신규 대안항목\*을 발굴하여 BS모형에 적용 계획

\* 가입기간, 메뉴별클릭/체류기간/경과기간, 한도조회건수, 상담톡/전화상담 횟수 등

○ 개인사업자의 입체적 신용평가를 위해 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추가 도입 예정

### 3 건전성 관리 계획

- **(현황)** '22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로 연체율, 부실채권비율 등을 개선하고 있으며, BIS비율 및 유동성비율(LCR)도 규제수준 상회

<케이뱅크 건전성 및 유동성 지표 현황 ('23.9월말 기준)>

연체율	부실채권(고정이하)	BIS비율	LCR
0.90%	0.88%	13.91%	209%

- ① (연체율) '22년 하반기부터 부도 예상 차주 선별 모형 도입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건전성 개선 중
- ② (고정이하비율) 지속적인 대손상각 및 CSS 고도화 등 통해 고정이하여신 규모 관리 중
- ③ (BIS비율)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위험가중자산(RWA) 관리로 계획대비 안정적 수준으로 BIS비율 관리 중
- ④ (LCR) 풍부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 규제수준 상회

- **(계획)**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및 부실채권 회수활동 등을 강화하고, 유동성 긴급대책 계획(Contingency Plan) 점검 및 유상증자도 지속 추진
- (연체율 관리) 과거 경험데이터 활용, 취약차주 및 연체전이율 모니터링, 우량 중저신용자 선별(CSS 고도화) 등을 통해 연체관리 강화
  - (부실채권 관리) 부실채권 증대에 따라 회수관리조직을 확대하고, 상담안내 및 회수활동 관리를 위한 채권관리시스템 도입 등
  - (유동성 관리) 유동성 Contingency Plan\*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, 유상증자\*\*를 통한 신사업 투자금 확보도 지속 추진

\* 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보고·대응 체계 유지 등

\*\*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'24년 이후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며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된 자본은 고유동성 자산 및 신사업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 예정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은행과	은행검사3국
연 락 처	02-2100-2986	02-3145-8345